



코닥, 중국 상하이에 아태 테크놀로지 센터 오픈 최신 인쇄기술 소개...직원 · 고객위한 교육센터로도 활용

코닥은 지난 9월 12일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태평양 테크놀로지 센터를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한 아시아 태평양 테크놀로지 센터는 코닥의 혁신적인 인쇄 플랫폼과 솔루션을 위한 데모와 직원 및 고객, 인쇄 파트너사를 위한 교육 센터로도 활용된다.

자료제공 | 한국코닥

1000㎡ 공간의 테크놀로지 데모 센터에서는 코닥 소로나 무현상 판재, 코닥 트렌드세터 800, 코닥 플렉셀 NX 시스템(5080W), 코닥 넥스프레스 디지털 컬러 인쇄기, 코닥 프로스퍼 S10 임프린팅 시스템,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혁신적 솔루션 제공할 것”

Jeff Clarke 코닥 CEO는 인사말을 통해 “상하이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센터를 오픈함으로써 중국 고객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를 통해 코닥은 지속적으로 상업 이미징 및 인쇄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율적, 고품질,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술을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것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고객사가 부가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징 기술 발전시키는 계기되길”

Lois Lebegue 코닥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는 “코닥 테크놀로지 센터 오픈을 통해 상업 이미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진보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고객과 업계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교육적인 경험을 갖고, 이미징 테크놀로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영감을 얻어가길 바란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상과 더 많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접근성 좋아 센터 설립 최적의 장소”

중국 코닥의 대표인 Bing Wang은 “상하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우리 고객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도

움으로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 테크놀로지 센터는 최근 최첨단 기술로 소로나 판재를 생산하며 확장하고 있는 사면 공장과 더불어 시장에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주요 R&D 센터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막대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업 이미징 테크놀로지 분야의 주요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를 방문한 코닥의 오래된 고객인 Jielong Industry Group 관계자는 “센터를 방문하면 코닥의 테크놀로지 스페셜리스트와 1대 1로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리스트는 소로나 무현상 판재와 코닥 프로스퍼 S10 임프린팅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데모를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 이외에도 의약품 및 식품 라벨링과 같은 보안인쇄를 포함하는 혁신적인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전사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